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미래청조 금융</li><li>• 따뜻한 금융</li><li>• 튼튼한 금융</li></ul>
	보도	2017.4.10.(월) 조간	배포	2017.4.7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 유 영 준(02-2100-2880)		담 당 자	최 범 석 사무관 (02-2100-2882)	

**제 목 :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, 글로벌금융시장 동향 논의  
및 한-인니 금융협력 포럼 참석 등을 위해 싱가포르,  
인도네시아 방문예정**

-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 및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(4.11일)할 예정

\* AMRO(ASEAN +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), DBS, UBS, ANZ 등

-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및 브렉시트 등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 요인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
- 또한 정은보 부위원장은 4.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한-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할 예정

◀ **한-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개요** ▶

- **주최** : 한국 은행연합회, 인도네시아 은행협회 공동 주최
- **일시/장소** : 2017.4.12.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
- **주요 참석자** : 금융위 부위원장, Ms. Eni Panggabean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
국장, 하영구 은행연합회장, Mr. Karita Wirjoatmodjo 인도네시아 은행협  
회장,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등 100여명 규모
- **논의내용** : 은행산업 발전 방안, 중소기업금융, 한국의 금융교육, 신용  
정보, 주택금융, 디지털 뱅킹 등

\* 은행연합회는 '16년 미얀마, 캄보디아 은행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, 이번이 세 번째 포럼(미얀마: '16.6월, 양곤 / 캄보디아: '16.11월, 프놈펜)

- 정은보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금융회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함께 금융인프라, 중소기업 금융,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**협력관계를 강화**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

- **인도네시아**는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이 **활발하게 진출**하는 국가중 하나로, 우리 금융산업의 **동남아시아 진출**에 있어 **교두보 역할**을 하고 있음

\* 인니 내 우리 금융회사 점포현황 : (은행) 8, (금투) 6, (보험) 5, (여전) 5

- 특히, 인도네시아 현지 영업경험은 **해외진출 수익모델 탐색, 현지화 경험 축적** 등 여러 측면에서 향후 여타 동남아 국가로의 진출에 큰 자산이 될것으로 평가

- ☐ 이와 함께, 정은보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을 만나 영업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

- 업권별 진출 환경 및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,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, 현지 당국 접촉 곤란 등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

- 또한,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\*, 금융감독청 위원장\*\* 등 고위급 금융당국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,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

\* 아구스 마르토와르도조(Agus Martowardojo) 총재

\*\* 물리아만 다르만샤 하다드(Muliaman Darmansyah Hadad) 위원장

- ☐ 금번 출장 결과는 '17.4.12일에 별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